선악과인가? 생명과인가?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다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시고, 비진리와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나를 바로 세우고 남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생명나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상기케 하신 것이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옳고 의로운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정죄하며 심판하시지 않고 먼저 다가가 함께 식사하고 용서해주시며 새 생활을 하도록 구원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와 신자들은 옳고 그른가의 싸움만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정작 경계할 이단은 활개를 치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은 서로 가짜인가 의심하고 경계의 눈초리로 훑어보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차원에 머물지 말고 긍휼과 자비를 함께 나눔으로 피차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생명나무의 신앙생활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삶이다. 도덕과 윤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신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체험되는 영적인 삶이다. 이것을 누리라고 생명나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차원, 바로 혼적인 차원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닌가? 영적인 삶은 우리의 육체적이고 혼적인 오감각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Spiritual senses)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삶이다(히 5:14).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을 통해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도 바울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행 23:1)고 간증하였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딤전 1:19)고 경고하였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야 된다.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마저도 파선한다.
따라서 우리는 옳고 그름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혼이 아니라 영으로 움직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서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